

특별기고

365일 한글날을 꿈꾸다



강희숙  
조선대 국문과 교수

567돌 한글날, 22년 만에 다시 찾은 공휴일이기도 하니 일단은 다른 어떤 해의 한글날보다도 반갑고 뜻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글날을 기하여 틀림없이 한글과나 우리말 오염이니 하는 말들이 아주 잦다, 비 온 뒤 여겨지거시 합부로 솟아나는 대나무순처럼 무성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좀 분명히 해 둘 일이 있다. 한글날만 되면 회자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한글과파’라는 말은 그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는 사실이다. 바로 며칠 전에 실린 한 지방지 기사 내용만 하더라도 다른 아닌 한글과파

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 기사의 일부이다.

“올해로 567돌을 맞는 한글날, 그동안 우리들은 우리글과 말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살았다. 특히 통신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시작된 한글과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맞춤법 무시는 기본이고, 사전에도 없는 언어들이 일상어로 쓰여지는 세태는 씁쓸하기만 하다.”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한글과파’는 맞춤법 오류나 잘못된 어휘 사용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맞춤법과 어휘 사용의 오류일 뿐, ‘한글과파’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의 문자 한글이, 그것도 인류가 고안해 낸 400여 개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에 속하는 한글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 체계성을 지녔으면서도 익히기도 쉬운 한글이 파괴되거나, 그러한 경우란 네모반듯한 한글이 세모나거나 한쪽 귀퉁이가 어그러졌을 때이거나 우리가 한글을 포기하고 영어 알파벳이나 일본의 가나와 같은 문자를 빌려 쓰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글 대신 파괴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밝히고 난 후에야 한글날, 국가 행정이 또는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아닌 게 아니라 걱정할 만한 일이 적지 않다.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글들을 비롯하여,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표준 화법에 어긋나는 호칭이나 인사말, 외계어에 가까운 청소년들의 은어나 유행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나 폭력적인 말들, 이러한 것들이 실은 진정으로 소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뭔가 좀 반듯하면서도 깊이 있는 국어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파괴된 우리말과 글의 정체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과 글의 오염원 또는 파괴의 주범은 청소년들이라며 한글날만 되면 자꾸만 청소년들의 말과 글에만 시비를 거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실은 어른들의 말과 글이, 그것도 우리의 국가 행정이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어느 광역시청 누리집 정보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번 폴리(urban folly) 프로젝트’ 추진, ‘2013 중소기업 FTA전문컨설턴트 수출자문컨설팅 지원’, ‘2013광주미디어아트페스

티벌 참여작-시민참여사진 공개 모집’, ‘UCC 광주(젊은 세대 간에 바이벌이 가능한 Fun한 광주 소개 영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시니어 비즈 플라자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시정 소식의 일부인바, 문자 그대로 시의 행정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문서의 내용들이다. 필자가 세종대왕께서 일찍이 매우 어여뵈 여겨셨던 어린 백성에 해당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의 시정 소식은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100%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으니, 세종대왕께 참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쉬운 우리말 대신 이렇게 낯설고 어려운 외국어를 즐겨 쓰는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써야 된가 새로운 창조적 행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닐까 섬뜩한 생각이 들 정도이다.

요컨대, 말과 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진대 제대로 된 말, 누구에게나 소통 가능하면서도 기본 좋은 말들이 한글날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그 어느 때고 사용될 수 있기를, 그것도 우리의 행정 또는 언론이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社說

심각한 농어촌교육, 정부 특별 배려하라

전남지역 농어촌 교육의 참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농촌인구 감소, 우수학생 유출로 해마다 늘어나는 폐교는 지역현안이 된지 오래다. 낮은 교육시설이다 시골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도 갈수록 떨어져 교육의 질이 반감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최근 일반고 학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을 일반고에 우선 배치하고, 목포·순천·여수 등 고교 평준화지역에 입학사정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학교에 신입생 선발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다는 게 골자다. 거점고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특히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원, 교육청 등 3대 구성원이 함께 교육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처음은 아니지만 전남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대안들이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교육 여건이 지역 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전남의 경우 산업 낙후와 더불어 농어촌이 안아야 하는 불리한 때문에 교육기반 또한 가장 열악해 지역불균형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자구책 마련과 동시에 전북·강원·경기교육청 등과 함께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우선 배치하고, 목포·순천·여수 등 고교 평준화지역에 입학사정관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학교에 신입생 선발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다는 게 골자다. 거점고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전남교육청이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분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도시지역과 차별화된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전남을 비롯한 낙후된 농어촌지역에 특별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도 부합되는 것이다.

운동부 운영비 학부모에 전가시켜서야

광주·전남지역 초·중·고교 운동부 경비의 학부모 부담액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부 경비에 대한 학교, 교육청 및 지자체의 지원이 극히 열악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허리가 휘 지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민주당 박흥근 의원이 최근 구기종목 운동부가 있는 전국 1015개 학교로부터 운동부 학교회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 35개 학교의 학부모 부담액 및 학교 지원액은 45억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160억9000만 원)을 제외한 부산(20억9000만 원), 대구(20억4000만 원), 인천(12억8000만 원), 대전(5억4000만 원) 등 광역시 가운데 가장 부담이 가장 큰 것이다.

전남지역도 43개 학교에 학부모 부담액을 포함한 학교 지원액은 11억7800만 원으로, 도 단위 지역 중 강원(271억6300만 원), 경기(111억3200만 원), 충남(22억5500만 원) 다음으로 많았다.

운동부 운영비는 코치진 인건비와 전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좋은 성적을 올렸을 경우 격려금이나 화식비 등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하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수치가 학교회계를 통해 드러난 것일 뿐 실제 부담액은 훨씬 많다고 밝혀 힘들게 뒷받리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운동부 학생들은 장차 국위를 선양할 재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월드컵축구에서 4강에 올라 국민적 환호와 단결을 가져온 것이 이들의 역할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운동부의 운영비는 일정 부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교육청과 지자체 등도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되, 학교회계의 운영비 집행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몸매가 대세



이호영  
2030미라민 외과 원장

집에서 TV를 시청하던 극장에 앉아있던 어디에선가 3D 입체영상의 쪽뽀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들을 볼 수 있다. 갈수록 타이트하게 몸매를 그대로 드러낸 대담한 스킨진이나 핫팬츠 차림의 연예인, 예능프로그램에서는 보는 이의 시선을 자극하는 강렬한 몸매나 몸짓을 쉽게 볼 수 있다.

매력있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남자보다 또래의 여성들이 더 큰 것 같다. 부러움과 시샘으로 잠을 이룰수가 없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몸매, 그게 바로 나

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환상을 한번이라도 꿈꾸지 않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만약 살만 뺄 수 있다면 파우스트처럼 악마에게 영혼을 팔 수도 있다는 여성들도 많다. 그만큼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또 다이어트가 어렵다는 방증일 것이다.

결국 이것 저것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지방흡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흡입은 누가 뭐라 해도 한순간에 몸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방흡입은 우리 몸의 과지방을 몸 밖으로 빼내는 것이다. 풍성한 사람일수록 많은 양의 지방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체형 변화가 크다. 빼고 싶은 부위의 지방을 작은 관을 통해 원하는 만큼 뺄 수 있기에 즉각 날씬해진 몸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번 빠진 지방은 쉽게 찌지않기 때문에 어떻게 경이롭기까지 한 시술이다.

그러나 지방흡입술은 누구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술에 적합한 피

부와 지방 유형이어야 효과가 있으며, 시술자도 반드시 유능한 전문의여야 부작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방흡입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있을만하면 보도되는 지방흡입 부작용 환자에 대한 뉴스는 지방흡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지방흡입술은 분명 어느 정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결과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이는 지방흡입술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것이고, 시술하는 의사가 제대로 시술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 생각된다.

지방흡입은 일단 시술 직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흡입술을 한다고 다 날씬해지는 것은 아니며 근육질이 아닌 충분한 양의 지방층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또 피부가 너무 늘어져 있지 않으며, 흡입술 이후에도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경우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복부 비만의 경우 내장지방이 아닌 피하지방 양이 많아야 흡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이어트나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

고도비만의 경우 흡입만으로 완전한 효과를 보기 어렵고 반드시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하며, 흡입도 반복 시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당연히 수술하는 의사의 능력도 중요하다. 요즘은 레이저 등의 좋은 장비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흡입을 시행하는 하지만 수술의 핵심은 정교한 손기술에 있다. 제품으로 따지면 100% hand-made에 가깝다. 마치 도예공이 하나의 도자기를 빚는 것 같은 예술적인 감흥이 필요한 시술인 것이다. 수술 내내 일정한 감각을 유지해야하며 적당한 양의 지방뚜껑을 남기는 감이 중요하다. 자칫 서투른 조작은 고르지 않은 피부면을 만들고, 너무 과한 흡입은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적정량의 흡입이 성공의 관건이다.

기고

중소기업, 사람이 최고의 자산



김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장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술만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한 인력 부족에 대한 고민도 섞여있지만 말 그대로 ‘술만한’ 즉, 일 잘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 귀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이런 고민은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업성과의 80% 이상은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 내 우수한 직원 1명이 기업 전체의 50% 이상의 성과를 낸다고 한다. 기업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고, 확보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얼마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에 따

라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하드웨어보다 인적자원에 공을 들여야 한다. 생산, 마케팅, 연구 등 분야별 인적자원의 특성을 파악해 이들이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충성도 높은 기업의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관리에 힘쓰는 것이 기업도 좋고, 직원도 클 수 있는 비법이다.

하지만, 인재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이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를 뽑았다 한들 효율적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미국의 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증액했을 때 생산성이 3.6% 향상된 반면, 직원 교육훈련 투자를 10% 증액했을 때는 생산성이 8.4%나 증가했다고 한다. 시설투자보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더 효율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가능성 있는 인재를 발굴해 자기 성장과 계발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에 더욱더 매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서는 이미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인재중심경영을 바탕으로 더 차

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을 투자로 생각하며 최우선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시 인적력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작업현장의 공백,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잠코리아에서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90%가 직원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한 반면 직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45.8%만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중 직원교육훈련비 비중이 대기업은 0.9%인 반면 중소기업은 0.2%에 불과하다는 2012년 고용노동부 자료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통째라고 생각된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못한 기업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외부의 연수기관을 활용하거나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커리큘럼을 찾아서 교육을 받는 등 지금까지도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때다.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흐를

수록 체계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외부교육을 받던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은 2가지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CEO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직원 교육은 당장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다. 교육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CEO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참가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

둘째,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의 태도나 협동, 나눔, 배려 등의 가치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생산성 증진에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적 자원의 역량이 기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판가름할 정도로 성장의 주 키위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이다.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날기를 꿈꾸는 CEO라면 사람을 키우자.

또다른 자살 막기 유가족 정신적 치료 지원 필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국가이다. 하루 평균 42.2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하는 것조차도 겁이 날 정도다. 아이들이 끔찍한 생각을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자살 문제에 서툰데도 불구하고 할 또 하나의 부분은 바로 유가족과 주위사람들이다. 한 사람의 자살이 평균 6명에게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유가족에 대한 치료와 사후관리는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동시에 추가 자살을 막는 자살예방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은 많은데도 되려 그런 부분은 그동안 소홀한 것 같다.

그 대표적 사례가 탤런트 최진실씨가 자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 최진영씨가 안타깝게도 누나의 뒤를 따라간 것이다. 살

아있는 가족은 자살을 선택한 가족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을 쫓겨 마음 아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잠재적 자살자’는 바로 자살자의 유가족들이다. 한 사람의 자살은 유가족과 주위사람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걸 안겨주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유가족들의 죄책감 때문이다.

바로 옆에서 자살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은 자살한 사람을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섭섭함,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연민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평생 잠재적 상처로 남을 수 있고, 심각하게는 모방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3달 동안 무려 4명이 연달아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긴 것이다. 자살자가 생기면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담당하는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앞으로 자살자가 생기면 주변 가족과 친지, 친구들 중 가장 가까이 있던 주변인들을 정신적으로 치료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했으면 한다.

▲김숙자·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無 等 鼓**

“위대한 운명의 순간은 천재만을 원하고 그를 불멸의 모범으로 만들어주지만, 유순한 자는 경멸하며 밀쳐버린다. ‘지상의 또 다른 신’이기도 한 위대한 운명의 순간은 불 같은 팔로 담대한 자를 쳐들어 올려 영웅들의 하늘로 들어보낸다. 조심성, 복종, 성실, 신중함과 같은 모든 일상적인 미덕은 저 위대한 운명의 순간의 불길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녹아버리고 만다.”

독일의 언론인이며 작가인 마리 자겐슈나이더(Marie Sagenschneider)가 한 말이다. 이웃과 국가,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을 좌우할 ‘운명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과 조우한 개인에 대한 고찰이다.

1955년 12월 1일 오후, 미국 앨라배마주(州)의 몽고메리에서 흑인 간과 백인 간으로 나누어진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로자 파크스는 중년의 평범한 흑인 여성에 불과했다. 그러나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한 번 되새겨 볼 때이다.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날기를 꿈꾸는 CEO라면 사람을 키우자.

“위대한 운명의 순간은 천재만을 원하고 그를 불멸의 모범으로 만들어주지만, 유순한 자는 경멸하며 밀쳐버린다. ‘지상의 또 다른 신’이기도 한 위대한 운명의 순간은 불 같은 팔로 담대한 자를 쳐들어 올려 영웅들의 하늘로 들어보낸다. 조심성, 복종, 성실, 신중함과 같은 모든 일상적인 미덕은 저 위대한 운명의 순간의 불길 속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녹아버리고 만다.”

독일의 언론인이며 작가인 마리 자겐슈나이더(Marie Sagenschneider)가 한 말이다. 이웃과 국가, 더 나아가 인류의 삶을 좌우할 ‘운명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과 조우한 개인에 대한 고찰이다.

1955년 12월 1일 오후, 미국 앨라배마주(州)의 몽고메리에서 흑인 간과 백인 간으로 나누어진 버스를 탈 때까지만 해도 로자 파크스는 중년의 평범한 흑인 여성에 불과했다. 그러나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한 번 되새겨 볼 때이다.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날기를 꿈꾸는 CEO라면 사람을 키우자.

으로 거듭났다.

“적절한 순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No’는 몽고메리 흑인들의 ‘버스 보이콧’을 촉발했고, 흑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26세의 젊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세계적 인권운동가로 변신시켰으며, 결국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을 폐지시켰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1989년 6월 5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한 남성이 탱크 앞에 말없이 서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로자 파크스의 순간’과 같은 것이었다”고 깨달아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운명의 순간’은 항상 필요한 때 태어나, 있어야 할 곳에 내려앉곤 했다.

지금 청명한 가을 하늘엔 ‘역사의 필연’으로 생겨난 ‘운명의 순간’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사회를 쪼름쪼름 극한의 대립과 갈등을 깨뜨리고 불멸의 모범으로 우뚝 섰, 용기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홍행기 사회1팀 redplane@kwangju.co.kr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滄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국독신청·매달인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